

SUCCESS 2007

옷차림도 전략이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지?’

직장인다면 누구나 이러한 고민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중요한 약속이라고 매번 같은 복장으로 갈 수도 없거니와 코디의 방법조차 잘 몰라 머리를 쥐어짠 적도 한두 번이 아닐 터. ‘옷차림도 전략’ 인 시대에 끊임없이 타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직장생활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업무뿐 아니라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다.

제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옷이라도 상황과 분위기에 맞지 않으면 예의 없고 센스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시간(Time) · 상황(Occasion) · 장소(Place), 즉 TOP에 맞는 연출 법으로 멋지게 성공하는 2007년을 만들어보자.

남 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복장은 자신의 품위와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장소와 때를 구분하는 것이 기본 매너이다. 사무용 정장은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품위 있는 범위의 베이직 수트가 좋다. 검정색이나 감색을 기본으로 하되 화려한 원색이나 튀는 재질과 눈에 띄는 디자인은 삼가도록 하자.

하의는 줄이 잘 서고 단이 구두 등에 가볍게 달는 정도가 알맞다. 비즈니스 드레스셔츠는 흰색을 기본으로 하며 넥타이는 거울에 비쳤을 때 벨트의 버클을 약간 덮을 정도로 양복과 동일한 컬러가 무난하다. 보색 계통을 선택하면 화려하며 믿음직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구두는 수트의 색깔과 맞춰 신는 것이 좋으니 검정이나 짙은 갈색이 무난하고 이에 맞춰 양말의 컬러도 선택하되 목이 짧은 양말은 피한다. 유니폼을 입는 경우에는 사유물이 아니므로 회사의 이름이나 심벌마크 등이 손상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성은 유행보다는 자신에 맞는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짧은 스커트나 속이 비치는 블라우스는 삼가고 피부색에 가까운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구두는 자신의 걸음걸이를 유지해 주는 것으로 선택하고 옷차림을 돌보이게 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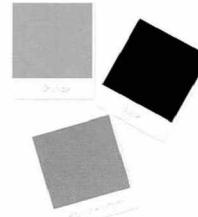
TOP(Time, Occasion, Place)를 고려한 의상 선택 요령

비즈니스 상담이나 점심식사에 초대 받았을 때 사람을 만나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0.1초. 반면 한번 결정된 첫인상을 바꾸는 데에는 많은 접촉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첫 인상이 비즈니스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코디는 필수. 힘을 상징하고 비대한 체형을 커버 할 수 있는 짙은 회색과 검정은 힘과 세련미, 성공을 상징한다. 하지만 자칫 지루하게 보일 수 있으니 색이 강한 스카프나 벨트 등의 소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뢰감을 주는 남색과 호감을 암시하는 감청색도 비즈니스에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 이밖에 갈색 톤과 붉은 계열은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느낌을 주고 벽돌색은 따뜻하고 감성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으니 미팅의 성격에 따라 분위기를 맞춰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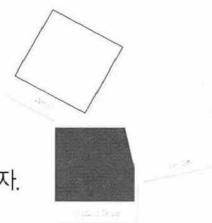
디너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편안한 인상으로 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빨강과 밝은 노랑, 파랑은 자극적이면서 안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또 부드러운 레몬 계열과 핑크는 손님들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컬러이고 오렌지색은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으니 분위기를 이끄는 센스 있는 코디를 연출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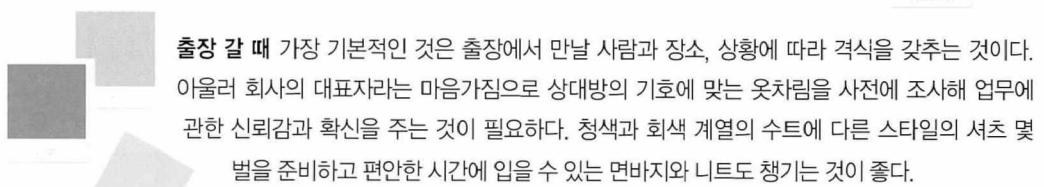
대중앞에서 연설 할 때 좌중을 압도해야 하는 대중연설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컬러가 필요하다.

내빈을 동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면 짙은 파랑, 검정, 빨강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뢰와 관심을 끌어야 하는 연설의 경우 주홍, 노랑으로 흡입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밖에 청록색, 감청색, 군청색 등은 호감을 줄 수 있는 컬러이므로 선택 시 신중을 기해보자.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때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고 피부색이나 체형에 관계없이 잘

어울리는 파란 원색과 밝은 파랑은 믿음직한 인상을 주는데 안성맞춤. 또 파란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흰색이니 적절히 매치하면 믿음과 차분한 영감을 주는데 효과적이다. 또 호소력을 주는 오렌지색과 활기차고 적극적인 노란색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출장 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장에서 만날 사람과 장소, 상황에 따라 격식을 갖추는 것이다.

이울러 회사의 대표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의 기호에 맞는 옷차림을 사전에 조사해 업무에 관한 신뢰감과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색과 회색 계열의 수트에 다른 스타일의 셔츠 몇 벌을 준비하고 편안한 시간에 입을 수 있는 면바지와 니트도 챙기는 것이 좋다.